

“데뷔작 ‘칸’ 초청에 뿌듯... 외국 관객들 공감에 더 기뻐”

관객과의 대화 광주 찾은 ‘도희야’ 정주리 감독

광주극장 21·23일 상영



“좋은 배우들 만난 건 행운”... 고향 여수서 촬영
고2때부터 영화감독 꿈꿔...한예중서 연출 전공
“개인 둘러싼 다양한 폭력성 탐구하는 데 관심”

‘도희야’ 정주리(34) 감독과의 인터뷰는 당초 약속보다 늦어졌다. 19일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 광주극장을 찾은 그녀는 극장에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옛날 옛적에 서부에서’(1968) 상영 소식을 듣고 꼭 그 영화를 보고 싶어했다. 인터뷰 자리에서 미안함을 전한 그녀는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필름 프린트로 볼 줄은 몰랐다.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여수 출신 정 감독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메가폰을 잡은 첫 작품으로 칸느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간’ 부문에 초청돼 레드카펫을 밟은 행운이다. “떠나기 전에는 세계 거장들의 작품도 볼 수 있겠다. 멀리서 유명한 영화인들도 보겠다 싶었는데 너무 정성이 없었죠. 일 정도 빠듯했구요. 해외여행은 난생 처음이었어요.(웃음) 비행기를 타 본 것도 제주도 갈 때 딱 한 번 뿐이었죠. ‘도희야’에 대한 해외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관객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 고맙고, 뿌듯했습니다.” ‘도희야’는 할머니와 의붓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던 14살 소녀 도희와 시골로 좌천된 파출소장 영남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신인 정

감독은 CJ엔터테인먼트와 진행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시나리오 공모전에 ‘도희야’로 참여했다 탈락했다. 시나리오를 아가워했던 이창동 감독이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며 제작을 맡았고, ‘도희야’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도희야’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배우나·송새벽·김새론 등 배우들의 열연이다. “이런 배우들과 영화를 찍을 거라고는 시나리오 쓰면서는 상상도 못했죠. 이 감독님이 제작을 맡으면서 배우 선택폭이 넓어졌어요. 30대 중반 여배우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최근작을 다봤죠. ‘코리야’에서 두나씨가 등장하는 첫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야’ 싶었죠. 시나리오를 보낸 당시 영국에서 위소스기 남매와 촬영중이었는데 시나리오가 좋더라 3시간만에 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도희 역은 가장 먼저 김새론에게 시나리오를 건넸지만 한달 가량 묵묵부답이더니 결국 “합 들어서 못하겠다”는 답이 왔다. 14살 배우가 소화하기에는 벅찬 역이라 무작정 해달라고 매달릴 수도 없었다. 이후 500명 정도 오디션을 봤고 결국 김새론이 맡게 됐다. 송새벽은 조감독이 보여준 연극 ‘해무’ 스틸 사진을 보고 바로 캐스팅됐다. “이전에 새벽씨가 하던 코믹연기에 대

한 어떤 편견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촬영에서 몰입하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새론이를 때리는 장면이 많았는데 새론이가 힘들어하는 뉘끼가 다 힘들어하면서 너무 고생했어요. 몰입하고 빠져나오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 차례 토하기도 했죠. 후시녹음 때도 웬만하면 장면들을 보지 않으려했죠. 그를 만난 걸 제작진 모두 감사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바닷가 마을이다. 제작진은 당초 강원도부터 전국을 다 뒤지며 촬영 장소를 헌팅했다. 결국은 시나리오의 출발점이자 정감독에게 익숙한 여수와 순천 등에서 주로 찍었다. 영화 끝과 마지막에 여수 돌산이 등장하고 도희집은 금오도에서 촬영했다. 영남집은 순천에 오븐세트와 짓고 찍었다. ‘도희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희의 선택은 관객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어떤 이들은 그 ‘불편함’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생존을 위해 도희가 갖게 된 영역함을 바라보면서 불편해해도 어쩔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걱정하고 자꾸 되돌아봤던 게 제가 생각한 영화적 장치들이 단지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하는 점이었죠. 이런 아이를 현실에서 만나면 그 자체가 아프고, 불길하



19일 ‘도희야’ 관객과의 대화를 위해 광주극장을 찾은 정주리 감독.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 찝찝할거예요. ‘아이 괴물’이라는 대사는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대사였어요. 괴물이 되어가려는 아이를 함께 꺼안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해하길 바랐어요. 떠나려던 영남이 마지막에 마음을 돌리는 대목도 그 부분이었어요.” 정 감독은 칸느에 다녀온 후 고향 여수에서 상영회를 가졌는데 ‘심한 격려’를 받았으며 웃었다. 무엇보다 아는 장소들이 많이 등장하니 관객들이 좋아했다. “제가 비디도 세대잖아요. 어렸을 때 아빠가 영화를 좋아하셔서 밤마다 비디오를 쌓아두고 보셨어요. 장르 불문에 무작위였죠. ‘필라델피아’, ‘양들의 침묵’ 등 할리우드 영화는 물론이고 첩자이커

와 왕가위의 영화들도 많이 봤어요. 열에서 자연스레 볼 기회가 많았죠. 중학교 때 학교 빼먹고 영화관에서 ‘데미지’를 내리 3번 봤던 기억도 나요. 영화에서 무슨 의미를 찾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영화 보는 것, 영화 그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 1때는 친구랑 버스타고와 광주 시내마테크에서 ‘블루벨벳’을 봤던 기억도 납니다. 고 2때 일기장을 들춰보니 “나는 꼭 영화감독이 될 거야”라는 글도 있더군요.” 여수여고를 졸업한 정 감독은 성균관대학교 영상학부에 입학했다. 단편영화 작업한다며 학교 공부를 등한시했고 학사경고를 3번 내리 받아 제적을 당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영화를 공부하고 싶어 한예중 영상원 전문사 과정에 입학했고 모두 6편의 단편을 찍었다. “폭력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요.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 행해지는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경합니다.” 정 감독은 19살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나리오 집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도희야’는 광주극장에서 21일 오후 2시, 23일 오후 7시20분 두 차례 더 상영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에서 근대까지 호남 서화가 24인 예술세계

전남대 이선옥 교수 ‘호남의 감성으로 그리다.’ 펴내

호남이 ‘예향’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기에 가능했다. 그 가운데 글씨와 그림에 능했던 서화가들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그림에도 이들에 대한 연구와 조명은 몇몇 이념 서화가들에 국한되었던 게 사실이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이선옥 HK(인문한국) 교수는 최근 호남 서화가 24인의 전기와 작품세계를 담은 ‘호남의 감성으로 그리다-24인의 호남서화가 이야기’(전

남대학교 출판부)을 펴냈다. 책은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활동한 호남 서화가 24명에 대한 기초적인 전기와 기술하면서 서화의 흐름에 따라 화가들의 삶과 예술을 들여다본다. 제1부는 호남 서화의 기틀을 이룬 화가들로, 1기묘사림들과 운우서를 비롯한 녹우당의 3대 화가가 중심을 이룬다. 제2부에서는 소치 허련과 그 아들 손자로서 이어지는 운림산방의 화가들을, 제3부에서는 의재 허백련과 연진회 화가들의 이야기를



답았다. 제4부는 사호 송수면 등 뚜렷한 족적을 이룬 화가들을 다뤘다. 제5부는 호남의 서예가들을, 제6부에서는 오지호, 김환기, 최경자 등 근대 화가들을 소개했다. 저자는 “여러 서화가들이 이야기를 통해 호남서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뿌리에 호남의 감성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

올재 클래식스 ‘수호지’ 시리즈 나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발간되는 ‘올재 클래식스’ 11번째 시리즈로 중국 고전 수호지(水滸誌)가 나왔다. 2102쪽 분량의 4권짜리 완역본으로, ‘올재 클래식스’ 42~45권에 해당한다. 2006년 교수신문이 뽑은 ‘최고의 고전 번역’에 포함된 중국 연변대학(延邊大學) 공동번역팀의 번역본이다. 원작의 시(詩)와 사(詞)를 생략하지 않고 감칠맛 나게 옮겼다. 특히 기존의 한국어 번역본들은 108호걸의 양산백 집결로 끝나는 ‘70회본’을 원전으로 삼았으나 연변대학 번역본은 의형제들의 의리와 조정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이야기까지 다룬 ‘120회본’을 토대로 했다. /연환뉴스



본기마다 4권씩 발간되며, 동서양 고전을 권당 2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감상할 수 있다. 시리즈당 5000권이 발행된다. 4000권은 6개월간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인터넷 교보문고(www.kyobobook.co.kr)에서 한정 판매된다. /연환뉴스

광주비엔날레 회원 모집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가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은 연회비에 따라 정회원(2만원), 우수회원(10만원), 특별회원(100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은 본인외 동반 1인에 한해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회원은 본인 무료입장에 동반 1인 50% 할인된다. 특별회원은 본인외 동반자 모두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단 입장권 할인은 연 3회로 제한된다. 광주비엔날레 회원은 입장권 할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누려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있는 북카페 밀레에서는 음료 20%, 아트상품 10%가 할인된다. ‘라프레스코’도 전 메뉴를 10% 할인해 준다. 문의 062-608-4225. /김경민 기자 kki@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정촌, 특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천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습,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형석
011-642-7777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익우 제 관

급히 찾고 있습니다

- 1.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들어 갑니다
 - 0.공시지가,감정가 이하의 모든 부동산
 - 0.상가빌딩,상가주택,원룸,가든,모텔...
 - 0.단독주택,다가구,빌라,농촌 주택등등
 - 0.임야,전,담등등(특히 국도변 우선)
- 2)이런분들이 좋습니다
 - 0.기업사립학교 담보용으로 쓰실분들
 - 0.빌딩 시육용,상가,원룸등월세및투자 할분들
 - 0.단독,농촌주택 거주할 노인분들
 - 0.한옥 카페할분들
 - 0.태양광,전원주택,농장할분들등등...
- 3)부동산이러면 워든 연락주세요
 - 0.건물,대지,전,담,임야 종류에 관계 없습니다
 - 0.서울,대전,광주,목포등 지역에 관계 없습니다
 - 0.많거나 적거나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 &&지급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다음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부동산,건강,생활 정보가 가득합니다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인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경매

영광 백수해안도로부근
대지 10,730㎡
펜션부지적합

감정가 5억4300만원
최저가 5억4300만원

신안 증도면
대지 4,858㎡
엘도라도500m거리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억994만원

화순 도곡면 도곡원천영
3.4층 무인숙박시설
대지 2,057㎡
건물 2,332㎡
주변개발호제있음
복층형,실내 고급인테리어

감정가 24억9천만원
최저가 17억4천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 주원
010-7171-7610